

큰스님 수행한담

수많은 부처님 계시죠



◇지난 6월 금강산 성지순례를 했다. 사진 왼쪽부터 덕은스님, 연운스님(태고종 사정부장), 일우스님(종회의장).

환에 빠지고 맙니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번뇌라는 것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이어서 굳이 끊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승불교에서는 고해(苦海)가 바로 화엄세계이니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 따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번뇌가 보리'인 셈이지요.

대구 관음사를 창건해서는 은사스님을 5년8개월간을 시봉하면서 공양을 올린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가지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 애어는 남을 대할 때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얼굴로 대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동사는 남의 입장이 되어 한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던 불보살님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다 불보살님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과 나의 생각이 다른것은 갈등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긍정하고 수용하면 하나네요”

백정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두드리자 잠자고 있던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들을 마중나왔습니다. “아, 나의 어머니가 관음보살이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 수없이 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정은 지난 날을 참회하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가장 자기와 닮은 사람이자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면 자기 가족 또한 최소한 부처급일지니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늘 부처로 볼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될 날은 그리 멀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직장과 내 이웃에 수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남과 밤이 대립이 아니고 조화이며 남성과 여성이 대립이 아니고 조화이듯이 말입니다. 자꾸 자꾸 긍정하고 수용해가다 보면 언젠가 일체만물과 더불어 편안해지는 때가 오겠지요. 덕(德)이 있는 자에게는 늘 친구가 따르며 외롭지 않은 법입니다.

어렸을 때 국왕인 아버지의 집에서 떨어져나와 방랑의 몸이 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나중에야 아버지의 도움으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왕족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나이처럼 우리 중생들도 본래는 법신 부처님의 자식이었으나 그러한 거룩한 출생신분을 망각하고 부처의 길에서 등을 돌려 사바세계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연(緣)은 속일 수 없는 지라 비록 자기가 부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할지라도 마음은 늘 본능적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집 문안에 서있어도 부처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지만 부처는 늘 자기자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출현하신 까닭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라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지나 중생들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과 지금까지 함부로 살아온 습성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의 집에 들어가기 꺼려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부처는 둘이 아닌 동격이다’는 위대한 진리에 눈을 떠서 한시라도 빨리 부처의 집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은 하늘 전체를 뒤덮는 큰 비구름과도 같이 중생이라는 이름의 크고 작은 초목들을 빠짐없이 적셔줍니다. 부처님이 설하는 진리는 본디 평등하지만 사람들의 타고난 재질과 성품이 제각기 다른 관계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갖가지 다른 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성품대로 씩씩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 모두 평등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이은정

〈前 보문교 교장〉



<하>

큰스님을 뵈고 그 속내 깊은 가르침을 받아 깨어 있는 부처님 참 생명으로서는 부처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었다.

어느 날인가 스님은 주지실론 위에 붙어 있는 육화경(六和敬)을 가리키면서 그 뜻을 음미하라고 하셨다. 계화동준(戒和同遵), 견화동해(見和同解), 이화동균(利和同均), 신화동주(身和同住), 구화무쟁(口和無爭), 의화동존(意和同尊)이다. 이 세상에는 세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다. 권력에 의한 모임, 금력에 의한 모임, 동신동지의 모임이다. 권력과 금력은 무상한 것이다. 오직 동신동지의 모임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와함께 계율을 존중하고 지키고 의견을 서로 잘 맞추고, 이익을 똑같

청년회·일반불교 신도의 연합적 조직 거사팀 등에 참여하고 지도의 임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학생들과 매일 교문 앞을 쓸기도 하고 일요일 새벽이면 역전으로 영령탑으로, 보문산 공원으로 빗자루를 들고 나섰다. 농사철이면 모내기 등 할 일이 많았다. 토요일이면 중교동법회, 일요일이면 일반 신도법회, 청년회 대학생회 등 빠지는 적이 없었다. 부처님 오신날의 행사를 비롯 지역내 모든 불교관련 행사가 중립학교 중심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도소의 법회 및 위문, 양로원 고아원 등의 위문, 각종 기념일에 종교방송이나 지방신문 기고까지도 교법사의 몫이었다. 그 때는 그런걸 해줄 사람이 없었다. 잘하고 못하고 간에 능력 할 수 밖에

교직 30년...인연의 이치 전하려 노력
예불과 행선축원으로 하루 시작

이 수용하고, 몸으로 일을 함께 하며, 입으로 다투지 않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 승가는 화합하고 영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도 스님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노스님은 항상



없었던 시절이었다. 학교 조직의 변화로 교장이 되고 교장이 되어서 그 책 임과 역할 못 지 않게 교법 사로서 즉 포 교사로서의 생각을 지버리지 않았다. 교장실에서 매일

생일 맞는 학생들을 초청, 보은 명사의 시간을 가졌다. 또 명사를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했다. 〈부모은중경〉을 사경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열어 보기도 했다. 또한 '자기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기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연못 음악제 등을 통하여 직원과 학부모들과 종교적 이해를 높여보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나는 정년퇴임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았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 밖으로만 뛰어가던 내 신행이 보다 안으로 머물러 갈듯처럼 피어나야 한다.

노스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선지식들로부터 배운 불법의 큰 바다속에서 이제는 더 자주 묵묵히 살아가려고 한다.

비울줄 알아야 채울수 있는 공간 생겨요
복 구하는 기도전에 먼저 입장 참회해야

적어 있습니다. 스님의 생활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스로 공부해나가는 기간이었는데 주로 관음기도를 했습니다. 몸에 병이 많았더라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서 입장을 녹이는 수행이었

습니다.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하는 기도에는 자신의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가피력이 반드시 함께 합니다. 기도를 기록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을 참회하거나 남을 위한 기도는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자신의 그릇된 훈습이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비우게 해주니까요. 이러한 순수한 기도에는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타(利他) 동사(同事)의 사십법(四攝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십법은 더불어 사는 인간세상에서 서로 다툼이 없이 화합

중국어 백정이 한명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성질이 포악했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늘 아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웃의 권유로 관음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정성으로 기도한 덕분인지 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한 스님의 권유로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보타낙가산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게 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말을 들은 아들은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여러 사찰과 동굴을 찾아다니다 덕 높은 고승 한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대중들이 듣는 앞에서 “관음보살님은 네 집에 계신다. 집으로 돌아가면 맨발로 너를 반길 것이지 친견하게 되면 참으로 공손하게 모셔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늘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참된 자기를 망각하고 이 몸동아리와 실체가 없는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다보니 남과 내가 분리되고 거기서 미움 욕망 분노 등의 감정이 싹트고 갈등과 분열이 생겨납니다. 참된 자신안에는 원래 벽(壁)이 없으며 벽이 없으면 그곳에 적(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자신만의 성벽이나 틀을 만들지 말고 비울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세상만물을 담을 여유도 공간도 생기는 법입니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긍정하지 못하는 늘 불만과 긴장과 대립 속에 지내야 합니다. 남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마치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 만다라는 제왕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괘·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기형
· 만다라·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❶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① **깃대**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② **물레**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과의 영향이 완전히 차려지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밤마다 갈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건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팔이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 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에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에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내면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